김봉경

자기소개서 / 성장과 문제 해결

qudgoskfk12@naver.com • github.com/Taetaeeee

낯선 환경에서도 배우고, 문제는 근거를 확인하며 해결하는 사람

01 나의 이야기 / MY STORY

고민하는 일도 직접 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온 김봉경입니다.

2023 년, 컴퓨터학과 2 학년을 마친 뒤 편입과 복학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는 전공 수업이 인원 부족으로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의 공부가 걱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학과 활동을 하며 쌓은 관계를 떠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환경보다 전공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휴학 기간에는 집과 학원, 스터디카페를 오가며 공부 방식을 바꿨습니다. 매일 정한 분량의 토익 문제를 풀고 오답을 확인하며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2024 년 편입한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낯설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혼자 감추기보다 다른 편입생들과 수업 정보를 나누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IT 연합 동아리에서는 백엔드를 배우고 해커톤에 두 번 참여했습니다. 직접 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백엔드 개발자가 되는 것이 제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한 번에 답을 찾지 못했어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관심 분야를 좁혀 갔습니다.

진로를 구체화한 계기는 2025 년 졸업 프로젝트였습니다. 세 명이 함께 만든 실시간 키보드 입력 암호화 시스템에서 저는 Hyperledger Fabric 네트워크 구성과 연결, Go 를 이용한 매핑 값 저장·조회를 맡았습니다. 체인코드를 배포하다 TLS 인증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로그와 인증서 경로를 확인하며 원인을 찾다가 인증서 복사 과정의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바로잡은 뒤 배포에 성공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시스템 전체가 정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류가 발생한 지점과 해결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성하고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일이 제게 더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6 년 9 월 18 일에는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듯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단정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10 월 26 일에는 동료와 세션·토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동료가 설명과 자료가 도움이 됐다고 기록해 준 것을 보며, 지식을 혼자 쌓기보다 함께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9 월 28 일에는 목표한 강점 행동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쉬는 시간에 연습문제를 풀었습니다. 10 월 22 일에는 전날 끝내지 못한 일을 아침 일찍 와서 마쳤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일을 끝냈는지보다 어디까지 했고 무엇을 다시 이어서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남은 일은 다음 날 다시 이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관리사 2 급을 취득하고 리눅스 학습을 이어 가며 네트워크·인프라 엔지니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은 많지만, 모르는 것을 숨기기보다 묻고 오류가 나면 로그와 상태를 확인하며 원인을 좁히려 합니다. 기초부터 꾸준히 배우고 직접 확인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02 검증 근거 / SOURCE NOTES

이 서사는 T09 1 인칭 원문과 T11 자전적 소설을 대조해 사실 확인된 장면으로만 구성했습니다. 리추얼 기록: 2026.09.18·09.28~29·10.22·10.26. 졸업 프로젝트: Hyperledger Fabric TLS 인증 오류 진단 경험.